

경기도, 귀농귀촌 희망자 위한 '행복멘티' 모집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11월까지 행복멘티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경기도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초기 정착 단계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26년 귀농귀촌 행복멘토링 행복멘티'를 상시 모집한다.

'행복멘토링'은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경험이 풍부한 선배 귀농인(멘토)과 참여자(멘티)를 연결해 수요자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의 자가진단 결과 '진입', '정착', '성장' 단계에 해당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및 초기 정착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1대 1 멘토링 ▲그룹 멘토링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1대 1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를 개별 매칭해 맞춤형 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회당 2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룹 멘토링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4-6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현장 견학과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작목 재배 기술, 지역 탐색, 귀농 준비 과정 등



▲경기도제공

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회차당 4시간 이상 대면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 (refarmgg.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정보"라며 "이번 행복멘토링을 통해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전화(1800-8114 내선 1번), 카카오톡 채널('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검색) 등을 통해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com

전남농기원, 중소규모 발농업 기계화 모델 확산 나서

생산비 42%·노동력 56% 절감 기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발농업 기계화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 연시회를 열고 배추 생산 전 과정 기계화 모델 확산에 나섰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해남에서 '중소규모형 발농업 기계화 공동영농 모델 확산 현장 연시회'를 개최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배추 생산 기계화 재배기술을 선보였다.

현장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배 재배의 기계화율은 99%에 이르지만 발작물은 67%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파종·정식 단계(18.2%)와 수확 단계(42.9%)의 기계화율이 낮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배추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모델이 소개됐다. 현장에서는 정식기 3종과 휴입복토기 1종이 시연됐으며, 파종기 1종도 함

께 전시돼 농업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배추 생산 전 과정(파종, 두독성형, 비닐파복, 정식, 방제, 수확)을 기계화할 경우, 기존 인력 중심 방식 대비 생산비는 42%, 노동력은 56%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형 발농업 기계화 공동영농 모델 확산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기술 이전한 농기

계를 우선 지원해 성공적인 기계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우수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박인구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정식, 파종, 수확 등 단계별 기계화 모델을 적극 보급해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배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com



▲배추정식기를 활용한 현장연시회를 진행했다(전남농기원제공)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복지 강화한다

전남 나주시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및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을 본격 시행하며 농촌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여성농어업

인 행복바우처' 1차 선정자 6150명을 대상으로 총 12억 3천만 원 규모의 포인트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20

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간 20만 원이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

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이 밖에도 나주시는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형 보육서비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 들녘 화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금님표이천쌀, 2026년 3차 대미 수출 18.8톤 출고

농업인 소득 향상과 생활 안정 목표

이천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임금님표이천쌀이 미국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천시는 2026년 3월 26일 이천시 마장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임금님표이천쌀 3차 대미 수출 물량 18.8톤을 출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는 지난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수출 계약 체결 이후 진행되는 세 번째 선적 물량으로, 안정적인 수출 물량 공급과 현지 시장 수요 확대를 동시에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임금님표이천쌀은 2025년 10월 미국 Amazon 공식 입점

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기반을 확보한 데 이어, 현지 대형 마트 공급까지 확대되며 미국 내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망 확장은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이어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3차 수출 물량은 마장농협에서 생산·가공된 고

품질 쌀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K-푸드와 K-컬처 확산에 따른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프리미엄 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금님표이천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 전략과 안정적인 품질관리,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안전기 기자
midal0210@naver.com



www.kfeedia.or.kr

한국단미사료협회

- 정부위탁업무
- 회원사 지원사업
- 교육훈련사업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연구소

- 사료품질 및 안전성 검사
- 세계적 분석 검정능력 강화 및 확보
- 사료분석방법 개발 등 분석교육 지원사업

TOGETHER WE CAN!

안전한 대한민국 사료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단미사료협회

KFIA 한국단미사료협회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

본 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IA 회관 Tel. 02)585-2223
사료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미래산단4로 95 Tel. 044)863-5790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약초 가공제품 농가 창업 지원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풍부한 약초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약초 가공제품 개발 및 농가 창업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가공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가공 설비를 제공해 제품의 규격화를 돕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원료의 세척부터 추출, 살균,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쳐 기술적

자문을 해주고 있어 농가들은 초기 설비 투자 부담 없이도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들이 실제 창업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 및 마케팅 문제 해결도 돕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품목제 조보고 절차와 영양성분 분석,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은 최근 현대 소비자의 건강 트렌드에 맞춘 약초 가공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 품목으로는

썬바귀차와 당귀차 등 침출차를 비롯해 고농축 제형인 잔대 뿌리농축액, 생강청, 배도라지 액 등이 있다.

농산물을 활용해 약초 관련 가공제품을 직접 만들고 싶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들이 보유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상품화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촌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의 65세 이하) ▲환경농어민(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 생산)이다.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을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마감 이후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반기별(6월·12월)로 지역화폐를

통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일반농어민 월 5만 원(연 최대 60만 원), 그 외 농어민은 월 15만 원(연 최대 18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동 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어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